

어린이를 위한 讀書指導

金世翺
梨花女大教授

本稿는 出協主催의 「독서지도세미나」의 主題論文임.

1. 두개의 概念

도서관학이나 독서지도 分野에서 어린이라고 할 때 사회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약간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Reading Readness가 성숙하여 독서에 대한 精神的條件과 肉體的인 조건이 구비되기 시작하는 만 5세에서 6세반부터 이른바 共感的 讀書期라고 부르는 中學 2년때까지를 어린이 또는 어린이 독서라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서라고 할 때 그것을 세가지 類型으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Informational reading 그리고 Inspirational Reading 다음은 Recreational reading 이다.

어린이 독서라고 하면 初期段階에서는 Recreational reading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의 습관을 몸에 익히고 成長함에 따라 책과 같이 사는 생활대로 이것을 Life long reading이라고 한다. 어린이의 독서를 생각할 때 一次的으로 이 두가지 점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成人讀書문제와 어린이 독서문제를 이런 側面에서 고찰하는 것은 문제를 常識化시키거나, 世俗化시키지 않기 위해 중요한 點이라고 생각된다.

2. 어린이 讀書의 意義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고자 하는 어른들의 努力的 功績적인 목적은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學校에서 充分한 教育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擔任教師의 能力에 限界가 있고 教科書의 內容에도 限界가 있게 마련이고, 더우기 個性과 能力이 다른 많은 어린이를 같은 場所에서 平面的 水準에서 教育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으로서 教育의 目標을 달성하기가 어렵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건전하고 풍부한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은 이러한 根本的인 虛點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잘 쓰여지고 또한 잘 選擇된 도서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의 有能한 教師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국민학교 시절을 통하여 100권의 책을 읽었다면 그는 자기 학교 선생님 外에 100명에 우수한 선생님에게서 教育을 받은셈이 된다. 결국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독서생활은 人生行路에서 가장 중요한 Creative power(創造力)을 길러주게 될 것이다.

·教育效果中에서 가장 重要的 것이 이 創造하는 能力 일 것이다.

教師中心, 教科書中心의 教育方法에서는 이와 같은 Creative power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독서는 一生을 통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심어주고 책과 가까이 하는 生活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한 훈련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限定된 記憶과 經驗으로부터 事物을 판단하고 事態를 決定짓는 위험한 生活方法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獨善과 獨斷을 피하는 길은 오직 건전하고 바람직한 독서생활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취미와 흥미를 가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주고 자기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適當을 선택하는 태도와 능력을 양성하며 또한 독서에 의하여 생활환경을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경험시키므로서 生活經驗을 풍부하게 하고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며 최종적으로는 人格形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의 건전하고 풍부한 독서생활로서 단련되지 않은 頭腦作用과 精神感覺은 언제나 危險性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3. 어린이 독서를 위한 制度的 裝置

A. 讀書 資料의 問題

1940년대에 日本 동경대학 某教授의 論文中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고유의 문자를 가진 文化民族中에서 가장 독서를 하지 않는 민족이 한국이다. 그들은 왜 독서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입을만한 책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왜 입을만한 책이 나오지 않느냐하면 입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암담했던 식민지 시대의 우리 나라의 형편이 그대로 오늘 날에 해당될 수는 결코 없다. 이제는 아세아에서는 日本 다음으로 販賣量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고 문화민족으로서 만족할만큼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은 아니다. 어린이들이 입을만한 책이 많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이것은 作家와 出版業者의 문제로 대두된다. 한국에도 많은 유능한 아동문학작가들이 활약하고 있고 아동도서도 여러가지 意圖와 形態로 많이 출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다만 책이 많이 출판되고 많이 팔린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기에는 아동독서는 너무도 重要な 문제를 많이가지고 있다. 環境에의 適應性 人格의 形成과 같은 本質的인 側面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과 아동도서 출판업자들의 보다 진지한 研究와 努力이 要望된다.

아동들이 다만 그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책만이 좋은 책이다.

「A book is a good book for children only they enjoy it. Mary Hill Arbuthout의 말」

勿論 이 즐거움의 質이 문제가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말해서 즐길 수 없는 책은 어린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책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도서 어린이독서라 할 때 이 즐거움보다 教育的 效果를 더 強調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感覺이라고 생각한다. 재미가 곧 教育的인 수도 있지만 教育보다는 진정한 즐거움이것이 아동도서의 本質이다. 出版業者들도 단순한 商行為가 아니라 자각만 있다면 아동도서 출판에는 보다 전문적인 配慮가 요구될 것이다. 책의 형태, 活字의 크기, 鮮명한 印刷, 插畫問題 對象者의 設定等의 여러 문제가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成人文學의 亞流이거나 餘戲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B. 독서환경의 문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시험준비에 어린이들이 골몰할 때에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추첨제가 된 오늘 날에도 어린이 독서문제가 論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환경의 빈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見物生心」이라고 어린이들의 周圍에 책이나 독서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學校도서관의 疎外현상과 공공도서관의 貧弱상이 바로 이것이다. 학교마다 풍부하고 잘 선택된 도서로 가득찬 도서관이 마련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司書教師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운

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발달되고 공공도서관마다 설치되어야 하는 아동도서관이 지역사회마다 있고 아동의 독서지도와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사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서관에 대한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이 다만 입시준비를 위한 공부방이거나 宿題를 푸는 장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生活의 場」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 뿐만 아니라 많은 비도서자료도 수집되고 利用할 수 있게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固定意識이 좀처럼 是正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 圖書選定委員會의 設置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독서지도의 意義를 「the right book of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 즉 適當을 適者에게 適時에라고 定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良書라는 概念과는 適當은 다른 것이며, 독서는 언제나 適當가 필요하다. 聖書가 가장 훌륭한 良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어린이에게 읽기를 強調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良書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良書일 수도 없다. 各教育委員會에 어린이를 위한 도서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여기서 選定된 도서는 가정이나 학교나 도서관에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正當하고 權威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教育的인 側面에서는 고려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側面에서 多角度로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制度는 또한 아동도서의 質的向上을 招來할 수 있는 二重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方面에서 世界에서 가장 發達되어 있다.

Standard Catalog for Children 또는 Standard Catalog for High School 그리고 Book List 같은 것이 있어서 큰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出版文化協會내에 설치된 委員會에서 Book List나 Catalog 같은 것을 發刊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도서나 독서문제에서 출판문화협회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본다.

D. 가정에 있어서의 독서환경

어린이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보내게 된다. 독서를 잘 하는 어린이의 부모는 例外없이 독서이다. 자식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정에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시키는 일은 부모들의 귀중한 책임일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三位一體가 되어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을 위하여 努力하는 일은 다만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된다.